

나이팅겔 기장을 받고 나서

김 정 선

간호원의 최고의 영예스러운 기장을 받은 것은 내 자신의 공적보다도 여러단체인 간호협회 의사협회 조산협회의 힘있는 성원과 여러동지들의 수고해 주신 노력의 성과인줄 알고 마음 깊이 감사드리며 특히 의사협회에서는 많은 후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재삼 감사드립니다.

10월 27일 오전 10시 드라마센터에서 대한적십자사에서 국제적십자사 본부인 제네바에서 온 “나이팅겔” 기장을 수여하는 식이 공군악대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장내는 국제적이어서 각 나라 국기가 단 뒤에 나란히 꽂혀있고 화환과 꽃으로 장식되어 매우 엄숙하고도 화려하였다. 단 위에는 대통령부인, 미국대사, 국회의장 그 외에 여러고관들이 앉아있었고 일반석에는 수백명의 귀빈으로 차 있었다. 식순이 시작되어 대통령부인께서 “나이팅겔” 기장을 가슴에 달아주시고 악수를 하시니 대중의 힘찬 박수소리는 마음을 움직여 말할수 없는 어떠한 깊은 충격을 주었다. 순간적인 시간에

수십명의 카메라맨들이 벌떼같이 까맣게 물터선 것을 볼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식이 끝나자 꽃다발들이 가슴에 안겨지고 밖으로 나오니 알지도 못하는 학생들이 사진을 찍자고 하며 신문기자 방송국 사람들이 서트 먼저 만나자고 하는통에 정신을 차릴수 없는데 번개같이 스치는 생각은 어떻게 내가 이렇게도 지금 비싼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생각이났다. 그리고 이때에는 등행해 주셨던 원선생님의 조력이 매우 필요했다

절실시간에 뜻깊은 간호협회의 축하연을 기쁘게 받고 동지들의 성의에 마음깊이 감사를 느꼈다. 오후 3시에는 청와대에서 초청을 하였는데 거기에는 적십자사 사업의 공로자로 수상한 사람들도 많이 참석하였다. 그곳에서 대통령부인과 여러귀부인들 남녀학생들과 수차례의 사진을 찍고 많은 사람들중에서 특별한 대우를 잘 받고 돌아와서 연세대학병원 간호학과 동창회 축하회에 참석하였다. 거기에는 옛날에 한뜰에서 같이 즐기던 친

구들과 희망에 넘치는 신진 동지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옛세브란스를 연상케 하였다. 나의 영광스러운 수상을 같이 기뻐 해 주시는 저들의 성의 있는 축하회에서 깊은 감격을 느끼고 속소에 돌아와 여러가지 축품을 볼 때 어느 때 받은 선물보다도 볼수록 귀하고 감사하였다.

자리에 누어 그 힘찬 박수소리에 충격을 받고 그 이상했던 감정을 되풀이 하였다.

박수소리가 들려올때 나 자신은 기쁘지도 않았고 무감각하였으나 자신도 모르게 감정의 동요를 받았다. 동요된 이유가 무엇인가? 의문에 잠긴 순간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은 박수소리는 잘했다는 칭찬의 뜻이고 동요된 감정은 칭찬을 받을만한 일을 못했는데 너무 분에넘쳐 감격하였다는 뜻으로 해석 되었다.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 왜 주위의 사람들이 수십년동안 쌓은 공적이 크다고 요란스럽게 하니 여기에는 반드시 어떠한 이유가 있겠지 하고 그 요인을 찾아보았다. (1) 내가 병자를 간호 할 때 어떠한 태도로 하였는가? 누가

일으키셔서 하는것 보다 대체로 자진해서 일을 하였고 누가 환자에게 무성의하게 하는것을 볼때 항상 마음이 섭섭하였다. 아마도 충성과 동정심이 귀한요소인가 생각된다. (2) 어떤날 무산아동들을 교육하는 학교실에서 어떤 8, 9세 가량되는 남아가 신을 잃고 우는것을 보았다. 저 아이가 집에 돌아가면 생활이 가난하여 신을 즉시 살 수도 없는 형편에 얼마나 아이에게 야단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하니 그 아이가 울고있는 것이 어찌 불쌍한지 매우 답답하였다. 그래서 울지말라고 달래 새 신을 한결때 사주고 기뻐하는 것을 볼때 이것이 약자를 도와주는 봉사심인가 생각되었다. 최고의 영광인 "나이팅젤" 기장을 받게 된 요인은 환자를 중심으로 사랑하는 마음과 약자를 도와주는 봉사의 정신인줄 안다.

나 자신은 아무 보잘것 없지마는 마음속에 묻혀있는 인류애와 봉사심은 나이팅젤등잔의 불빛같이 한국간호계에 영원히 빛나기를 바라며 영광의 날을 가지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바입니다.

육 아 와 간 호

Gladys Sellew 공저
Marry F. Peppe

홍 옥 순 역

고급양장, 모조, 국판

대한간호협회 출판부 발행